

INN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OPEN



四一九학생의거기념탑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살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서문

본 책자는 정부수립 이후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성당과 교회, 학교 등의 활동을 소개한다. 서슬 퍼런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엄혹한 시절, 숭고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목숨을 걸고 활동한 당시 활동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 인천지역의 민주·평화·인권 역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인천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도시다. 부평의 미군 군수창이 철거되면서 부평공단이 만들어졌고 주안의 염전 지대가 매립되면서 주안 공단이 만들어졌다. 이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유입되었고 공장 노동자로서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기업은 성장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 수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해고되고 구속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어 학생 및 교수, 양심적 지식인들이 노동운동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인천지역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본 책자에서 소개한 노동조합과 단체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인천민주역사탐방길 기획팀에서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당시 활동의 극히 일부만 소개한 것이고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지면관계상 누락되었다. 이후 다시 보완하고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시 열정을 다해 활동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2014. 12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차례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발행일 : 2014. 12. 19

02 여는 시 굽이 돌아가는 길

04 서문

06 부평권

1. 부평역광장
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3. 부평1동성당
4. 진성전자 노동조합
5. 산곡동 천주교회
6. 청천동 영아다방
7. 백마교회
8.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9. 한독금속 노동조합
10.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11.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12. 콜트약기 노동조합
13. 남일금속 노동조합
14. 동보전기 노동조합

16 주안권

1. 5.3민주항쟁터
2. 주안5동성당
3. 주안노동사목(골목집)
4. 세창물산 노동조합
5. 경동산업 노동조합
6. 영창약기 노동조합
7. 선인재단
8. 4.19학생의거 기념탑
9.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24 중구·동구권

1. 동인천역 광장
2. 답동성당 및 가톨릭회관
3. 인천감리서터
4. 인천부두 자유노동조합
5. 구 인천부 청사(현 중구청)
6. 흥예문
7. 동일방직 노동조합
8. 큰물공부방
9.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0. 인천제철 노동조합
11. 송림동 사랑방교회
12. 심도직물

부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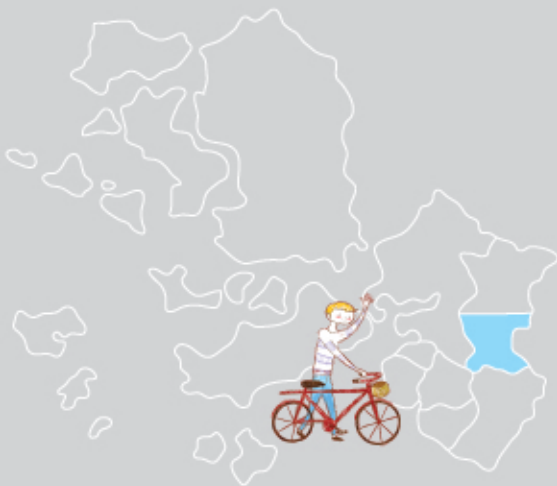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군수를 담당했던 일본군 조병창이 위치했던 부평은 한국전쟁 후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에 미군 에스컴 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군부대 유지에 필요한 소비산업이 활성화되었고, 한국 최초의 미군 기지촌도 만들어져 한때는 2,000여 명이 넘는 속칭 양공주들이 있었다.

60년 초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가최고재건위원회에서 부평국가산업단지 조성정책이 세워졌고, 이후 부평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 영등포 구로지역의 1,2,3공단에 이어 부평4공단으로 조성되었다.

공단은 196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69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효성동, 갈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 고무제품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이후 전기전자 부품을 포함한 기계업종 산업이 속속 들어섰고, 새나라자동차(신진자동차,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규모공장이 들어서면서 미군부대 철수 이후 약화되었던 부평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수출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저임금 노동력 착취 기업은 성장일로에 있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힘들었다. 70년 후반부터 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는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선진노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단 내 많은 공장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사용자와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힘겨운 투쟁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권리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육군조병창이 들어서 있던 부평 전경



1966년 현 부평공단이 조성되기 전 전경

1. 부평역광장

부평역광장은 인천지역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있어서 동인천역과 더불어 항상 주요 집회 및 시위의 현장이 되어왔다. 특히 87년 6월항쟁, 91년 5월투쟁 등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부평역광장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대중집회 및 시위 공간이었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부평역에서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대회가 시작되면서 지나가던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리며 집회에 호응했다. 십자가를 앞세운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곧 주변의 시민 학생들이 합류해 시위대는 곧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는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전경들이 잇따라 최루탄을 난사했지만, 함께 모인 시민들은 부평역 인근 골목길에 흩어졌다 다시 모이길 반복하면서 결국 부평역 도로 앞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부평역광장은 민주화 투쟁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를 비롯 부평공단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보고대회와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발족식이 진행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민노련)은 6월항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역 앞 대중 집회 현장에서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발족했다.

인민노련은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임무를 자임하며 1987년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노선을 확정짓고 민중민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활동했고 강령에서 인민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①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②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③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기관지로 <정세와 실천>을 4호까지, 그리고 <노동자의 길>은 41호까지 발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강조하였고 이를 공공연히 표방하였다. 그러나 1989년 10월 16,17일에 걸쳐 17명이 연행·구속되었으며 12월에 추가로 4명이 구속되어 총 21명에 달하는 구속자를 내기도 했다.



2013년 부평역광장에서 거행된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인천대회의 모습



6월항쟁 당시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부평역광장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1988년 6월 18일, 27개 사업장 4,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효성동 성당에 모여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동법개정 활동, 임금인상투쟁, 위장폐업분쇄투쟁, 노동조합탄압 저지투쟁, 신규노동조합 결성지원 및 교육홍보 등 상급노동조직으로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또 인노협의 투쟁과 활동은 이후 전노협 결성에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초대 의장으로 구속 중이던 한독금속노조 위원장 황재철을 선출하였으며, 이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지역 노동운동 활동에서 중요한 구심으로 활동하였다. 인노협 사무실은 초기에 부평역 앞에 있었고 이후 동암역 인근 십정동으로 옮겨 활동하였으며 자체 신문으로 '인노협 신문'을 발간하였다.



창립 이후 인천지역 노동조합 연대활동과 현안문제를 힘차게 벌여나가는 인노협

3. 부평1동성당

부평4동성당과 더불어 박종철 추모미사 및 진혼제, 참교육 학부모회 결성 등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활동 거점이었던 부평1동성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모임, 집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김병상 신부와 호인수 신부가 부임해 지역현안인 선인재단 비리문제와 시립화 작업, 계양산 개발반대,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과 실업극복인천본부 설립 등 지역의 주요현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부평1동 성당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위해 부평1동성당에 미리 들어가 있던 해고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4. 진성전자 노동조합

진성전자 노동조합은 1987년 8월 23일 약60여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진성전자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주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저임금으로 억압적인 노무관리 체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작업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89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부평4공단 여성사업장 노동조합(명성전자, 코스모스전자, 대한마이크로전자, 한국테크레코 등)들이 전자업종 임금인상 공동요구안(시급 2,617원)을 내걸고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진성전자 노동조합도 전면 파업과 단식 등 강력한 투쟁으로 해고자 복직을 제외한 대부분 요구를 쟁취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90년 민자당 합당 이후의 공안정국 속에서 노사관계가 급랭하고, 민주화운동 탄압도 거세진 가운데, 진성전자 노동조합은 간부들의 구속과 해고, 그리고 1년 이상 해고출근투쟁으로 진행하다 결국 92년 와해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남긴다.

90년 해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사 출입을 사측 노무관리자가 막고 있는데 항의하는 모습

5. 산곡동천주교회와 부평노동사목

산곡동천주교회는 8,90년대 대우자동차, 한국 베어링 등 산곡, 청천지역 및 부평4공단 일대 노동자들의 교육 및 투쟁 장소, 또는 상담 장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2001년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과 관련하여 성당 내부에 노동조합이 집행부를 두어 치열하게 투쟁하던 장소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한 투쟁 당시 경찰이 성당에 난입하여 노동자들을 연행하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사제복을 입고 있던 신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1977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며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야 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출발한 부평노동사목은 1988년 산곡동 천주교회 뒤편에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겸 사랑방, 그리고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 '새날의 집'을 마련하였다. 이후 새날의 집은 1999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인성교육과 상담을 위한 '노동자인성센터'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산곡동천주교회 뒤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겸 사랑방, 그리고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 '부평노동사목 새날의 집' 모습



현재 산곡동천주교회의 모습

6. 청천동 영아다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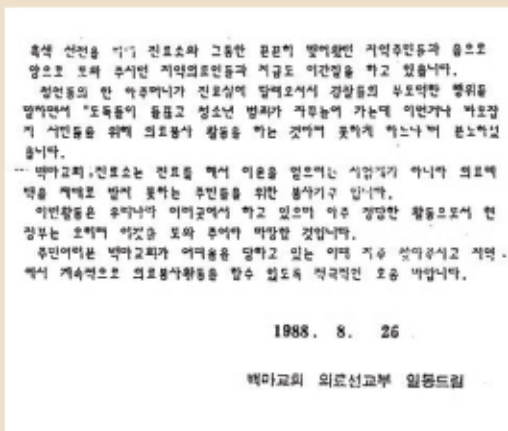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가들의 모임 및 만남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던 장소이며,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영아다방 4거리에서 퇴근하던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 쟁취, 민주노조 결성, 산업철매, 임금인상'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던 곳이다. 지금은 'John 179'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었다.

현재 영아다방의 모습

7. 백마교회

백마교회는 1974년 11월 화수동 도시산업선교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황영환이 실무자로 활동하였으며 삼원섭유 유동우, 김지선, 최영희, 반도상사 노조 활동가 등 많은 노동 활동가들을 배출하였다. 사랑방교회, 해인교회, 샘터교회 등과 더불어 인천지역 초기 민중교회로서 1980년대 중반에는 매 주말마다 '문화한마당' 행사가 열릴 정도로 지역노동자들의 활동 근거지 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백마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생산한 문건



97년 인천민중교회연합이 발간한 회보

8.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인천의 대표적인 대기업 노동조합으로 1963년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1985년 임금인상투쟁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으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지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다.

특히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 과정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재벌기업 공장에 들어간 학생출신 노동자가 재벌회장과 단독협상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해 나간 사건과 푸른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대표가 재벌회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섭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은 그 당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또한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인적인 폭력으로 탄압한 사건도 인천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우자동차 역사에는 두 번에 걸친 큰 투쟁이 있었다.

첫 번째로,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서 1960년대 후반에 두 차례에 걸친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바 있었다. 1967년 9월 241명의 조합원이 전국금속노조 신진자동차직할분회를 결성했으나 주동자 5명이 집단해고되고 분회장으로 선출됐던 정모씨가 회사 측에 의해 납치되어 실패하였고, 1969년 9월 노조 결성 움직임이 사전에 발각되어 주동자 8명이 전출되어 무위로 끝난 적이 있었다.

이후 1971년 4월에 다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어나 회사 측과 노총 그리고 금속노조 본조의 교묘한 방해공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노조 인준증을 교부받았다.

두 번째로,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은 남성노동자들이 대규모 공장에서 구사대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화에 나섰음을 말해주는 투쟁이다.

4월 16일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집권 후 대기업 남성 노동자들의 질서정연한 파업은 처음이었다. 회사와 경찰들은 가족들이 보내주던 밥과 빵 등의 음식을 반입을 끊었고 부모사망 등의 허위 전보로 파업 대열을 흩트리려고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분노만 사고 무위로 끝났다. 이후 농성 5일째 김우중 회장과 홍영표 대의원 사이의 단독협상이 열렸고 몇 차례의 협상 끝에 4월 25일 기본급 10%, 제 수당 신설 등에 조합원이 동의함으로써 대우자동차의 파업은 승리로 마감하였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만든 임금 가이드라인 5.2%를 깨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독재정권이 제시하고 허용하는 굴종의 삶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주인의식을 심어 준 사건이며 또 전국적으로 진행중이거나 교착상태에 빠진 타 사업장의 임금인상투쟁과 교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선 대우차노조의 투쟁



1987년 대우자동차 민주노조 인정요구에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있다.



협상을 위해 임시회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김우중 회장과 홍영표 대의원

9. 한독금속 노동조합

방위산업체인 한독금속은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였고 1987년 6월 임금인상 요구 시위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88년에 결성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으로 한독금속 노조위원장인 황재철 위원장을 배출하였다. 또한 영화 파업전야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한독금속 노동자들이 만든 음악 동아리로 '혼수상태'라는 밴드가 만들어져 활동하였고 노조 설립 때나 인노협 수련회 등 인천지역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연주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인천 민중문화운동연합 미술패 '갯꽃'과 한독노동자들이 함께 그린 벽화 '노동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이름의 벽화도 한독금속 노동조합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한독금속 노동조합 문화패가 회사 담벼락에 그린 벽화



한독금속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파업전야' 포스터



한독금속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10.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코스모스전자는 전자제품 생산 업체로 91년 2월 결제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7억여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고의부도를 내고 91년 5월 법에 정해진 휴업, 폐업 또는 정리해고 등의 정리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없이 사직서 제출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여성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여 서울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 5층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장부도 철회와 정상조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코스모스 전자의 위장폐업은 일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구조 조정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조합, 민주단체 및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 회사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무안으로 이전하였다.

서울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위장폐업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노동자들

11.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부평공단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성장했으나 85년 지도부의 구속과 회사의 탄압으로 와해되었다. 이후 87년 또 다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회사 측의 조합원 감금과 회유, 협박 등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이 다시 와해되었다. 그러나 93년에 세 번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회사측의 조합원 집단폭행 및 해고 등 등 엄청난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한 여성노동조합이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수도권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



대한마이크로 전자 회사 내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있는 노동자들

12. 콜트콜텍 노동조합

한국의 대표적인 기타생산 업체로 1987년 민주노조를 설립하여 열악한 공장 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콜트콜텍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노조 탄압 기업으로 남아있으며, 2014년 11월 현재 2,841일 동안 철거된 회사 터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옛날 콜트악기 공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

13. 남일금속 노동조합

식기류 제조업체인 남일금속에서는 1986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파업농성에 돌입하였고, 회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남일금속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각종 지역의 현안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후 남일금속 최동식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임금인상 투쟁 전진대회에서 남일금속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

14. 동보전기 노동조합

1982년 거액의 부도로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회사의 이윤은 정치자금, 사채놀이로 빼돌리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985년 10월 '체불임금청산'과 '회사정상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휴업을 하고 이후 기숙사에 사람이 있음에도 단전단수를 단행하는 등 비열한 행위를 하여 이후 12월 동보전기 노동자 14명이 인천4공단 본부를 점거하여 결사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동보전기 투쟁은 이후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1985년 12월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 관리본부를 점거농성하고 있는 동보전기 노동자들

주안권 주안5,6공단



주안공단은 남구 주안동, 서구 가좌동, 부평구 심정동 등 행정 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기업의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주안 염전을 매워 만든 산업 단지다. 주안 염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대규모 염전을 조성하여 공업용 소금을 생산하여 군수용으로 원료를 공급했던 지역이다. 주식회사 대한염업이 소유주였던 주안 염전은 인천의 도심 외곽에 있었다. 당시 소금의 과잉 생산으로 폐전되어 염전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산업단지 부지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30여만 평에 이르는 염전매립 부지에 섬유, 화학, 식품,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전기 및 전자, 목재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제조업이 입지하여 1980년대까지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산업화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으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피폐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공단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한 곳이다. 특히 세창물산 노동자 송철순의 사망, 경동산업 투쟁 과정에서 김종하, 강현중의 분신사망 사건은 공단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현재 주안 5,6공단의 전경



회사 앞에서 협의 중인 인천경동산업노사



87노동자 대투쟁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



1. 5.3민주항쟁터
2. 주안5동성당
3. 주안노동사목(골목집)
4. 세창물산 노동조합
5. 경동산업 노동조합
6. 영창악기 노동조합
7. 선인재단
8. 4.19학생의거 기념탑
9.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1. 5.3민주항쟁터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리는 시민회관(현재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수 만여 명이 모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고 기만적인 개헌 음모를 폭로하였다. 또 시민 등은 '민족·민주·민중 헌법 쟁취'와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건설' 등을 주장하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안역 일대에서 벌어진 이 날의 항쟁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특히 신민당과 민정당이 이원집정부제로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 민주 민중)헌법의 쟁취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외쳤던 구호는 '민주정부 수립' '삼민헌법 쟁취' '노동해방' '생활임금 쟁취' 등이었는데,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들 중에는 '제헌의회 소집'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반전반핵 양키고 홈' 등의 구호도 있었다.

12시 30분 경,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민통련이 주관하는 집회에서는 수배 중인 장기표 민통련 집행위원장이 연설을 하였고, 5~6천여 명의 학생들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나누어 주안역 방향과 석바위 쪽 방향에서 스크럼을 짜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민회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오후 1시 정도에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가 시민들로 꽉 메어졌다. 노동자, 학생, 시민 약 5만 여명은 '민주헌법 쟁취',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그 함성이 하늘을 찢었고 시위 참여자가 계속 늘자 경찰은 1시 반 경부터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



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6시 경 시위는 절정에 달했고 전투경찰도 약 1만 여명의 병력이 진압에 동원되어 당시 시민회관 주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5.3항쟁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이 약 40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소요죄와 집시법으로 구속되어 50여 명이 수배되었다. 이는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가 발생하였고, 수배자 검거과정에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5.3항쟁은 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시민회관 앞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 학생들

2. 주안5동성당

'염전본당'으로 출발하여 80년대 공단 조성 과정에서 '주안5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안5동성당은 1987년 노동자를 위한 미사, 한길야간고등학교, 무료진료활동 및 법률상담 등 주안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성당 근처의 상록수서점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꿈꾸는 많은 노동자들의 활동과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부평성당에 있을 때부터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호인수 신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초대 주임 반유리 신부와 신도들의 활동 모습



주안5동성당의 현재 모습

3. 주안노동사목(골목집)



주안노동사목은 주안역 북부 공단 입구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서 인천노동자문화회 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주안노동사목은 '내일을 위한 집'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골목집'으로 많이 불렸다.

반도상사 노동조합 조금분이 평신도 실무자로 있었고 주안노동사목과 관련이 깊은 주안5동성당에는 1986년 호인수 신부가 부임해 와서 지역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87년 6월에는 놀이패 '신바람'의 연극 등 노동자 및 민주인사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지금은 부평, 부천, 주안 등지의 노동사목이 하나로 통합되어 부평 십정동에 위치한 '노동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주안노동사목

4. 세창물산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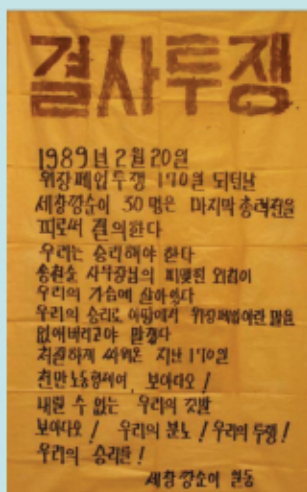
세창물산은 도자기 인형 수출업체로 노동자 250여 명 중 여성이 200여 명이었으며, 그 중 80여명이 16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로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안료, 신나, 석유 등 인체에 해로운 물품을 쓰고 있음에도 환기시설조차 없었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기업이기도 하였다. 이 상황을 참다못해 6월 28일 파업의 깃발을 들었고 요구 조건은 일당 1700원 인상, 상여금 400퍼센트, 여름유급휴가 5일, 파업 중 임금지급이었다. 회사 사장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자들은 200일 넘는 장기투쟁에 돌입했다.

1988년 임금인상과 어용 노사협의회 반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작되자 회사 측은 휴업 조치로 맞섰다. 노동자들이 ‘휴업 철매 파업기금마련 연대 집회’ 준비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위에 현수막(“사장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는 깡다구다”와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장내자”)을 설치하던 중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공장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조합 사무장 송철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세창물산 노동자들의 혈서로 작성한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

특히 1988년 11월 13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선봉대 선서 후 선봉대원들과 인천 세창물산 노동자 등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5m 길이의 광목천에 ‘노동해방’ 혈서를 썼다. 면도날을 반으로 쪼개 손가락을 그었고 피로 쓴 ‘노동해방’을 단상 앞에서 들고 다함께 노동해방을 외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전노협을 건설하자” “노동법을 개정하자”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세창물산 노동조합 원미정 위원장이 작성했던 결의문, ‘결사투쟁’이라는 문구는 혈서다.



위장폐업에 항의하는 세창 깡순이들의 집회

5. 경동산업 노동조합

양식기 제조업체인 인천의 경동산업은 작업 공정이 대부분 프레스와 연마로 되어있어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경동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1984년과 1985년에 노조결성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이들은 '어용노조 해산', '민주노조 건설', '임금인상',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주에 걸친 파업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요구를 관철했으나, 민주노조 임시집행부 선거 하루 전에 8명이 구속됨으로써 노조가 어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989년 임금인상 투쟁 시기 경동산업의 노동자들은 회사와 아합하려는 어용노조에 맞서 임금인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김치원 어용노조 집행부는 임금인상대책위를 해산시키고, 파업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뜻과 상관 없는 중재안을 멋대로 타결해 버렸다.



옛 경동산업 자리에 강현중
김종하 노동열사 추모비

이에 임금인상대책위원 출신을 중심으로 1989년 5월 14일 '디딤돌'이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디딤돌은 노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어용노조의 감시와 탄압 속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6월 6일 지역 노동자 추구대회, 8월 3일 인노협 수련회 참석 등으로 서서히 영향력을 높여 가자 회사의 탄압은 노골화되었다.

디딤돌은 8월 '경동가족 한마당'이라는 일일차집을 개최하려고 8월 11일부터 티켓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한 회원이 티켓을 빼앗기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모욕을 당하였다. 이에 디딤돌 회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회사 측은 디딤돌 회장 강현중, 부회장 유원식, 총무 안중준에게 사유도 기재치 않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디딤돌 회원 전원은 "조합원이 담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의 해고를 걸고 싸울 것"을 결의하고 모두가 협서를 쓰고 투쟁을 다짐하였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몇 차례의 협상이 있었으나 역시 결렬되었고, 계속 구사대와외의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다. 9월 4일 강현중 등 5명이 온 몸에 신나를 뿌린 채 강의신 이사에게 자신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이들은 몸에 불을 붙였고, 이들 5명과 강 이사 등 6명이 온몸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현중 등이 분신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최운규 등 2명이 노조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과도로 활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 강현중과 김종하가 사망하였고 경찰은 이견탁 등 18명을 자살방조, 폭력 등 위반으로 구속하였으며 사측은 40여 명을 강제 사직시켰다.



1989년 9월 4일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다가 분신한 강현중, 김종하의 장례식



1987년 경동산업 앞 도로에서 집거농성을 하는 노동자들

6. 영창악기 노동조합

영창악기 노동자들은 1985년 임금인상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조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회사 측이 구사대를 조직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어용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로 맞섰다. 이에 대항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대표적 노동조합이다.

2004년 5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지 하루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나 조합원들은 공장 내에서 대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삼익악기에 합병되었고 삼익악기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갈망하는 영창악기 노동조합원들의 투쟁

7. 선인재단

선인재단은 동양에서 제일 큰 사학재단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졌고 만주국 장교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인엽이 설립하였다. 50만 평 규모의 학교부지로 한때는 16개 학교가 있었으나 시립화 전까지 12개의 학교를 운영하였다.

학교 부근 주민들의 재산침해, 중국인 공동묘지 침탈,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 부정 편입학, 졸업장 판매 및 불법적인 기부금 입학 등 온갖 비리로 만연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학비리 재단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법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오랜 연대 투쟁 끝에 1993년 시립 인천대학교로 전환되었다.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청운대 인천캠퍼스로 사용 중이다. 이후 인천대학교는 국립으로 전환되어 송도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였다.



백인엽 이사장의 부패사학운영에 저항하여 학원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8. 인천기계공고에 건립된 4.19학생의거 기념탑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인천의 고등학생들도 앞장서서 참여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탑이 인천기계공고 교정에 있다.

기념탑에는 '젊은 학도들은 거래의 힘ियो 나라의 기둥이다. 특히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회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 혁명을 일으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이들의 피 끓는 울부짖음은 먼 하늘에 메아리 쳤고 우렁찬 발자국 소리는 지축을 흔들었나니 이 씩씩하고 장한 행동은 천추만대에 빛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교정에 건립된 4.19 학생의거 기념탑

9.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인하대학교는 1954년 '한국의 MIT공대 설립'이라는 목적으로 하와이 동포들의 뜻으로 단과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인하'라는 명칭은 인천과 하와이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970년대 유신독재 정권과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과 투옥을 무릅쓰고 학생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후 수많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인천지역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투신하는 등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길로 나아갔다.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중구 · 동구권

인천 중구, 동구는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제물포 조약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후 외국인 집단거주지인 조계를 형성하면서 서양인, 일본, 중국인들이 머물렀던 이 지역은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건설되었고 일제 강점기 조선 수탈물자가 나가는 인천항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상륙작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주요 건물로는 1890년대에 지어진 답동성당, 일본18은행 인천지점, 1892년에 지어진 인천58은행 인천지점, 1901년 외국인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제물포구락부가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1920년 6월 29일 조선노동공제회 인천지회가 창립되었고,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설립된 이후 인천에는 인천선미여공조합, 하역인부조합, 정미직공조합, 인천철공조합, 인천목공조합, 양랍직공조합 등의 노동조합들이 들어선 곳도 중구 동구지역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도요오 방직(현 동일방직)과 조선기계제작소, 가동정미소를 비롯한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섰고, 1960~70년대에는 한국기계공업(대우중공업의 전신)과 동일방직을 비롯하여 인천중공업(인천중공업, 현대제철의 전신), 이천전기(삼성전기의 전신), 대한제분, 한국유리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시설이 만석동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대규모의 인구가 중구 동구지역으로 유입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의 고달픈 생활 터전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권리향상을 위하여 화수동에 산업 전도를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다.

1961년 4월 감리교 인천동지방 감리사 조용구 목사(주안교회)와 인천서지방 감리사 윤창덕 목사(내리교회)가 인천 동일방직과 한국기계공업에서 산업선교를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그해 9월 오명걸 선교사(George E. Ogle)가 인천에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총무로 조화순 목사가 활동하였다.

특히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산선의 활동은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일궈냈으며 1980년 5공화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자 인천산선은 직접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일꾼역사교실 같은 문화사업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역할을 재조정해 나갔다.



조선기계제작소



이천전기



가동 정미소



대성목재

1. 동인천역 광장

동인천역 광장은 인천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부평역 등과 더불어 항상 주요 집회 및 시위 등의 현장이 되어왔다. 특히 87년 6월항쟁, 90년 5월 반민자당 5.9시위 사건, 91년 5월투쟁 등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대중집회 및 시위 공간이었다.

주변에 가톨릭회관, 답동성당과 더불어 각종 사회운동단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어 민주화운동세력의 주요한 결집지이기도 하였다.



현재 동인천역



1980년대 동인천역 광장

2. 답동성당 및 가톨릭회관

답동성당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답동성당에 봉직하는 성직자 자신이 민주화운동의 주체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나긴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인천지역의 주요투쟁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시노트 신부 강제출국 항의, 동일방직 노동조합 동물투척 사건, 김병상 신부의 유신 반대 강론, 박종철 추모미사 등을 거행하기도 하는 등 인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거점의 역할을 한 곳이다.



현재 답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 나와 언론왜곡 보도 및 노동자 폭력 탄압을 규탄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1987)

3. 인천감리서터

감리서는 개항시기에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사절의 상호교환과 주재 외국인 거주지 설정, 외국상인들의 출입, 선박의 입출항 및 국제교역의 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종 20년(1883년)에 설치되었다. 동인천역 건너 내동 83-5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재는 멸실되어 없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21살이던 1896년 황해도 안악 치하도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중위 쓰지다를 살해한 후 수감되었던 장소이며, 15년 후인 1911년 독립운동으로 두번째 수감됐던 감옥이다.



일제 강점기 인천 감리서 정문



동인천 역 건너 감리서가 있었던 자리의 현재 모습

4. 인천부두 자유노동조합

부두노동자들은 광복 이후 미군정, 6.25 전쟁, 4.19 의거, 5.16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대혼란기에서도 하역작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부두 노동자들끼리 분열과 통합을 되풀이하는 혼란 속에서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고 재건하면서 인천항에서 확고한 독점적 노무공급 체제를 확보해나갔다.

해방 후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노동자나 화주 모두 교섭대상이 없어 곤란을 겪었으나 1945년 10월 최초로 인천자유노조를 창립해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였다. 이후 조직은 사상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인천항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1940년대 인천항의 모습



현재 인천항의 모습

5. 구 인천부 청사(현 중구청)

1883년 일본 조계지 내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영사관이 있던 곳으로 이후 이사청, 인천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부터 1985년까지 인천시청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중구청의 본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 인천지부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4.19 혁명 당시에는 인천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시청(현 중구청)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인천의 여자중고등학생들



현재 중구청 청사

6. 흥예문



흥예문은 모양새나 쓰임 면에서 아름답고 실용적이지만 만든 배경에는 서글픈 일제 침략의 역사를 담고 있다.

강제개항 이후 일제가 각국 조계와 축현역, 만석동 일대를 이으려고 화강암을 높이 쌓아 통로를 무지개처럼 동글게 만들고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이후 선거 유세지로도 많이 이용되었고 4.19혁명 당시 인천 시내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곳에서 3.15부정 선거 규탄시위를 진행한 장소이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규탄을 위해 당시 인천시청(현 중구청)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인천시내 중고등학생들

7. 동일방직 노동조합

동일방직 민주노조운동은 70년대 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가 형성되고 내부로부터 조합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자본과 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이에 대한 저항, 폭력적인 노동규율, 회사 내에서 비인간적인 노무관리, 가부장적 노사문화와 남성폭력, 종교인·학생·지식인과 노동운동의 결합 등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또한 1970년대 노동운동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1972년 회사 측의 방해공작을 뚫고, 남성 위주의 어용노동조합을 깨고 22대 지부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부장을 선출하였으며 여성집행부를 탄생시켰다. 1978년 2월 회사 측 조종을 받은 남자들은 선거하러 들어오는 여성조합원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등 회사와 정보기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웠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일방직 정문



농성중인 동일방직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회사는 노동자들을 향해 똥물을 투척했다.

8. 큰물공부방

큰물공부방은 1983년 11월 만석동 판자촌(속칭 아까사끼촌)에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인 여성평우회가 빈민운동을 위해 만든 공부방으로 홍미영(현 부평구청장)이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빈민 여성들의 생활공동체와 학령기 아동을 돌보는 공간 역할을 했다.

이어 YWCA와 김미경 등 여성 빈민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 오다가 큰물공부방은 철거되고 내동교회 박종기 신부의 도움으로 87년 송림동 나눔의집을 창립했다. 근처에 있는 기찻길옆 공부방은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되었다.



인천 동구 만석동 팽이부리 마을



1998년 만석동 기찻길 옆 작은학교 새건물이 지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린 벽화

9.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동구 화수동 183번지에 자리 잡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는 미국의 선교사 조지 오글이 인천에 정착한 1960년대부터 이후 40여 년 동안 지역 주민 및 노동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동일방직, 인천중공업 등 노동자들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항과 함께 인천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모습



도시산업선교회의 후신인 일꾼교회의 현재 모습

10. 인천제철 노동조합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은 대우자동차와 함께 인천지역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출발하여 인천중공업, 인천제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당시 인천제철 노동조합은 경영진 퇴진, 기본급 책정 요구로 700여명이 조업거부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도 퇴직금 누진제, 가족수당,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한 바 있다.



현재 인천제철 전경



임금인상 및 단체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현대제철 노동자들

11. 송림동 사랑방교회



1988년 사랑방교회 창립3주년 기념 주민잔치 당시 박종렬 목사

사랑방교회는 1985년 10월 박종렬 목사가 송림6동 쪽방과 판자집이 모여 있는 달동네 주민들을 위하여 설립한 교회로 인천지역 대표적인 민중교회의 하나다. 주민과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과 한글, 주부교실을 열었으며, 1986년 4월에는 송림동사랑방진료소를 열어 홍학기, 김인수, 이원준 외 경희대의대 출신 진료진과 성모자애병원 간호사들이 결합해 양·한방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했다.

12. 심도직물 노동조합



강화읍 용흥궁 공원에 남아 있는 당시 심도직물의 글뚫

심도직물은 1947년 강화도에 설립되어 박정희 정권의 수출 진흥 정책과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호황을 누렸으나, 1967년 전국섬유노조 심도직할분회가 설립되자 경찰이 분회장을 연행하고 16명의 노조원을 해고했는데 이들 모두가 가톨릭 신자였다. 해고 이후에도 회사측이 노조에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해고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지속하자 가톨릭 청년회(JOC)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노조활동이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심도직물 사건은 교회가 사회 현실에 들어간 첫 사건이었고, 이후 교회 안에서 노동문제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IN
CH
EON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402-844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34-17 1층(주안2동 506-45)

TEL: (032)862-5353 FAX: (032)862-5352

E-mail: idph@daum.net

www.idph.kr